

'KRE리포터' 2016년 하반기 운영협의회 결과

1. 회의 개요

- 목 적: 리포터 운영 고도화 및 회원정비 등 운영전반에 대한 논의
-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13:00~15:30
- 장 소: 연구원 1층 교육실
- 참 석: 리포터 운영위원 24명 중 17명, 연구원 관계자 3명
 - 운영위원: 고창민, 김정오, 남양완, 박태우, 변해동, 송인숙, 유영순, 윤정임, 임광혁, 장석우, 정경희, 정태근, 조복례, 주양호, 최태봉, 김동원 창의정보실장, 김미리 주무원
 - 연구원 관계자: 김창길 원장, 정민국 기획조정실장, 문한필 연구기획팀장

2. 주요 논의결과

- 리포터 운영 고도화 설명 및 추진계획 협의 결과
 - 리포터 기수제 도입, 현장연구자문단 운영, 현장멘토링제 시행, 현장교육장 지정, 7년의 기록 발간 건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과 의견수렴
 - ⇒ 연구원이 마련한 리포터 운영 고도화 방안에 대해 원안 승인
 - ⇒ 현장연구자문단(20명), 현장교육장(10곳), 현장멘토(10명)선정자 본인확인 후 전 회원 및 원내 공지
 - ⇒ 현장멘토링 접수, 현장교육장 및 연구자문단 활용(9월중)

- 1기 회원 정비 및 2기 회원 선정계획 논의 결과
 - 1기 회원 정비(안): 1기 회원 40%선 재위촉(본인 확인절차 필요)
 - 2기 회원 선정(안): 시군 오피니언리더 농업인(최소 162개 시군)
 - ⇒ 1기 회원정비: 최근 3년 간 활동실적과 마일리지를 집계하여 40% 재 위촉하는 연구원 추진 방안을 조건부 승인(보완)
 - ⇒ 2기 회원선정: 누락지역에 원내 추천, 기관 추천, 공모 등 추진

○ 지회 간부진 교체에 대한 승인 결과

- 임기 경과(3년)에 따른 간부진 교체

· 임기 만료: 심광섭 충북지회장, 이성원 충북지회 총무

· 지회 추천 간부 후보: 윤정임(지회장), 박종임(총무)

⇒ 운영위원 17명(24명 중) 거수로 윤정임(충북지회장), 박종임(충북지회 총무) 교체 승인

3. 향후 계획

○ 9월 중 리포터 고도화 방안 시행(회원정비 등)

4. 이모저모



5. 회의록

- 회의 진행: 김동원 창의정보실장
- 의장: 김정오 중앙회장
- 참석자: 리포터 운영위원 24명 중 17명, 연구원 관계자 3명
 - 운영위원: 고창민, 김정오, 남양완, 박태우, 변해동, 송인숙, 유영순, 윤정임, 임광혁, 장석우, 정경희, 정태근, 조복례, 주양호, 최태봉, 김동원 창의정보실장, 김미리 주무원
 - 연구원 관계자: 김창길 원장, 정민국 기획조정실장, 문한필 연구기획팀장

8월 31일(수) 연구원 1층 교육실에서 '2016년 하반기 리포터 운영협의회'를 개최함. 이 날은 KREI리포터 운영위원 17명과 연구원 관계자 3명이 참석하였고, 리포터 운영 고도화 계획, 1기 회원 정비 및 2기 회원 선정(안), 지회 간부진 교체 건에 대해 논의함. 특히 김창길 신임원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리포터 활동에 대한 지원과 연구 활용 확대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1. 개회사

김정오: 오랜만에 나주에 모여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 오늘 하루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리포터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안건이 많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각지에서 모여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리포터 운영 고도화 및 회원정비 건과 관련해 회의 주요 안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운영 고도화, 회원정비 등 안건에 대해 설명)

2. 운영 고도화

장석우: 현장교육장 등 선정 명단을 잘 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원정비와 관련해 기존회원의 40%에 들지 못한, 해촉 회원 대상자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동원: 현재 기존회원 정비와 관련한 명단은 초안일 뿐입니다. 1차적으로 실적과 기

여도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이 아닙니다. 회원정비 계획에 현장교육장 등 운영 고도화와 연계해 위촉할 것을 명시해두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확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입니다.

임광혁: 네 가지 모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활용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김정오: 이전에 운영 고도화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가 있었습니다. 사랑방 사이트에 공지되었었는데 참여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아이디어 공유를 당부합니다.

3. 1기 회원정비 및 2기 회원 선정

임광혁: 회원정비 시 벤처농업대학과 연계해서 하기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벤처농업 대학의 권역별 모임을 보면 강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활발한 활동과 연계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포터에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정오: 엄연히 리포터는 벤처농업대학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그룹이기 때문에 모든 면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계산적인 목적으로 리포터에 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지역간담회의 참여율이 낮은 회원을 보면 지역간담회에 와서 뭐하냐는 인식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모이는 것이 아닌 내 삶과 농촌의 터전을 마련하고 좀 더 나은 농업정책 마련을 위해 목소리라도 내보자, 하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보상이나 목적 보다는 리포터로서 소속감을 갖고 자긍심을 고취해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태봉: 회원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같은 회원이 계속해서 활동해 간다면 농업이슈에 대한 생각과 제도 등 굳어진 틀에 갇힐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김동원: 2기 회원 선정에는 명망이 높고 젊고 SNS 및 PC 활용이 가능한 회원을 주로 추천받으려 합니다. 검증을 거쳐서 시군마다 최고의 현장전문가를 선정해 구성하겠습니다.

고창민: 제주지회는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12명의 회원 중 일부 그룹을 지어 의견충돌이 잦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평가하고 해촉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이 방식대로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태봉: 리포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활동이 부진한 회원은 과감히 잘라야 합니다. 리포터 스스로 고도화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선정해 탄탄하게 입지를 굳혀 나가야 합니다.

김동원: 해를 거듭할수록 리포터 활동에 대한 자부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남양완: 회원정비 기준으로 회원마다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연도 별로 끊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조금 야박한 느낌이 듭니다.

김동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연구원의 규정과 회원 개개인의 생각,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평가나 아무 근거 없는 정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성과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한 회원을 해촉 한다는 것이 꼭 최선이나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활동에 대한 평가 뿐이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활동에 대한 점수가 아닌 간부 활동, 토론 참석, 현장방문 지원 등의 특별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적용한 점수입니다.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했다고 보여 지며 이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양호: 지회모임을 해보면 30명 중 10여명이 참석합니다. 같은 지회 회원인데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준을 두고 원칙에 의해 해촉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창민: 리포터 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끌어가거나 탄탄히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회원 수 축소가 필요합니다.

임광혁: 회원의 3년 임기는 사실 긴 편입니다. 초창기에는 열심히 했으나 중간에 동기부여가 부족하면 금세 활동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김동원: 회원정비와 관련해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 현 회원 189명은 내년 6월까지 활동을 계속 하면 됩니다. 정비작업을 위해 미리 논의하는 것이니 본 회의 자료는 운영위원회 내부 자료로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하반기 워크숍에서 확정안을 드리겠습니다.

4. 지회 간부진 교체

김동원: 지회 간부진 교체 대상자는 충북지회 심광섭 지회장과 이성원 총무입니다. 임기가 오래 되었고 지난 연찬회에서 회원 간 추천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장석우: 그런데 윤정임, 박종임 회원 모두 해촉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촉 대상자 명단은 확정안이 아닙니다. 또한 회원정비 작업을 위해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지 실제 회원의 활동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10개월이 더 남아있습니다. 당장 해촉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잔여기간 동안 간부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오: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으시다면 이 안전에 대해 찬성하는 분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김동원: 전원 찬성으로 지회 간부진 교체를 승인합니다.

윤정임: 제가 열심히 활동하지 못해 부족함이 있습니다. 기존회원 정비를 위한 40%로 안에 들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남은 1년의 위촉기간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 충북지회 간담회도 계획해보겠습니다.

5. 원장님과의 간담회

김창길 원장: 리포터가 7년이란 시간동안 연구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임 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리포터 담당부서인 조사고객팀이 기획조정실로 이동하였고 이는 연구 기획과 평가 등 연구의 직접 활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원장으로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연구에 어떻게 활용,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현장연구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더 나은 활동을 위해 정비해나갈 것입니다. 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하여 5~10분이면 이제 농촌과 농업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연구원 경영을 비롯해 리포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시어 연구에 도움을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7년 동안 리포터 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이끌어오느라 수고해준 김동원 실장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변해동: 연구원이 나주로 와서 거리 상 너무 멀기는 하지만, 농촌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기쁜 마음이 듭니다. 리포터 운영 7년은 제도를 자리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과 명망이 높은 리포터 구성을 위해 차기 2기 회원 모집에 적극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근: 신입원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리포터를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걱정거리는 쌀값입니다. 이 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길 원장: 쌀 재고, 쌀 값과 관련해서는 현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의 특별보고 건이기도 합니다. 가격하락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원에서도 비중 있게 다룰 것입니다. 연구차원에서 특별히 다루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석우: 저도 농촌의 문제 중 농촌인력 문제에 대해 꼬집고 싶습니다. 현재 청양에서 밤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고령인이 많아 노동력 둔화, 청년층 인구유출 등의 원인으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확 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김창길 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농촌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연구원 과제선정 평가에 리포터 분들이 참여해 이런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보다 더욱 더 역할을 확대해 현장의 적나라한 이야기를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최태봉: 리포터 회원을 사랑해주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김창길 원장: 리포터를 사랑하는 것은 리포터의 일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 마일리지 제도를 비롯해 계속해서 활용 및 사례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습니다.

남양완: 리포터 조직을 끌고 오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김동원 팀장님을 비롯 실무부서에 매우 감사합니다.

박태우: 저는 함양, 부산지역에 쌀 가공공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을 가공하기 때문

에 검역소와 연관이 많은데,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건의를 해봐도 10년 전부터 개선하겠다는 말만 돌아올 뿐 손해가 많습니다. 연구원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김창길 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규제개혁 전담반이 있습니다. 의견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규제개혁TF에 전달해 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연구하겠습니다.

김정오: 현재 리포터 회원이 189명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정비를 계속해서 상당히 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용 확대와 소속감 부여를 위해 더욱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길 원장: 신입박사 등이 현장방문, 체험 등 좀 더 현장과 가까운 소통과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리포터 분들께는 번거로운 일이실 수 있지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국 실장: 조사고객팀이 기획조정실로 이관한 것은 원장님의 경영목표의 일환입니다. 현장 농업인과의 소통, 그에 핵심이 될 부분이 리포터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니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특히 과제 발굴, 현장자문단 활동 등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준하는 대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고유 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한필: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구기획팀장으로서 더욱 더 연구와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 기타 의견

윤정임: 연찬회는 농한기에 개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회원도 많고 친목도모 겸 1박2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주양호: 예전에는 1박2일 행사였는데 예산의 문제인 것인지 사라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동원: 예산 문제는 배제하고도 전체 회원 중 1박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어렵게 시간 빼고 오시는 바쁘신 회원 분들이 많아 부담을 갖게 되

어 오히려 참석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하는 회원에 한해 숙박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였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변해동: 얼마 전 농협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태도도 좋고 유익했습니다. 농협에서 진행하는 단체교육은 어떨까 합니다.

김동원: 교육비 등 별도로 농협에서 진행해줄 것인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오: 매년 11월쯤 하반기 중앙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히 제안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년 17년도 지회 활성화 계획을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각 지회에서 개최할 간담회 몇 회, 주제 등 활동계획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연찬회 자료집에 넣어 각 회원이 참고하고 연중계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동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1기 회원 정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1월 워크숍 때는 확정안을 마련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